

중도입국청소년의 애착외상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

조효진* · 전지열**

요약 본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이 부모와의 분리 경험으로 인해 겪는 정서적 고통을 애착외상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에서 부모와 떨어져 성장한 후 한국에 입국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37개 드러난 주제, 17개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다. 본질적 주제는 ‘친척들의 손에 자란 어린 시절’, ‘함께 지낼 수 없게 된 부모에 대한 그리움’, ‘부모에게도 마음을 기댈 수 없어 분노함’, ‘홀홀단신처럼 살아가기’, ‘떠나고 싶지 않은 본국’,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중도입국 이후 떨어져 지내던 부모와 재혼 가정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하면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 ‘중도입국 가정에서 경험하는 현실적 문제들’, ‘새로운 언어를 익히기 어려움’, ‘친구들과의 관계 어려움’, ‘인종차별 문제’, ‘학업의 어려움’, ‘친구들의 지지’, ‘학교의 지원’, ‘새로운 가족 안에서 적응되어감’, ‘자율적인 노력’, ‘종교생활’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의 애착외상 경험,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중도입국청소년, 애착외상, Giorgi 현상학, 질적 연구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8077821).

* 주저자,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조교수, hyojin@sungshin.ac.kr

** 교신저자, 한국상담대학원대, 상담심리전공, 조교수, yeori102@kcgu.ac.kr

1. 서론

최근 국가 간 이주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개인들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단순한 인구 구성의 다양성을 넘어 사회 통합 및 복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김은경·김현주 2017). 특히 이주 배경을 가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가족 형태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재혼가정의 증가로 인해 ‘중도입국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이주 배경 청소년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여성가족부 2022).

중도입국청소년은 결혼 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데리고 온 국외 출생 자녀나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청소년을 지칭한다(최영미·송영호 2020). 이들은 대체로 부모가 한국 사회에 정착한 이후, 이전 혼인에서 출생한 자녀를 본국에서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식으로 입국하게 된다. 그 결과 대부분은 13~15세 이후 비교적 늦은 시기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상당 기간 부모와 분리 경험을 겪게 된다(김진원 외 2017).

실제로 국내 중도입국청소년 중 69%가 입국 전 부모와 떨어져 지냈으며, 3년 이상인 경우도 41.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데(배상률 2016), 이들의 현실은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아 한국 국적자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되기도 하며 모국으로 보내져 모국에서 외국인이나 미등록자로서의 삶을 이어가기도 할 만큼 제대로 된 돌봄이 부재한 경우가 많았다(신윤정 2018). 부모의 보살핌이 가장 필요한 청소년기에 부재했던 부모의 존재에 대한 원망, 분노, 그리고 그리움과 같은 복합적인 감정을 이겨내야 했던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이 시기를 ‘부모가 자신을 버린 시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김효정·조규필 2018). 또한, 상당 시간 부모와 떨어져 살던 경험으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는 소원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원만하게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낯선 한국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물질적·정서적 지원이 사실상 부재한 경우가 많아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경험하고 있었다(이수진·김현주 2016).

이러한 심리적 취약성은 해외 연구에서도 이민자의 자녀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불안정한 양육 환경은 부적응적 행동으로 이어져 학업 부적응, 이탈, 약물중독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었으며(Oishi 2012), 불안,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다(Juang et al. 2018). 특히 이주한 부모 세대와 본국에 남겨진 자녀 세대 사이의 분리 경험은 오랜 기간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 관계를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arreñas 2005). 특별히 자녀들이 홀로 본국에 남겨진 기간은 ‘버려짐’의 외상 경험으로 작용하여 부모와 분리되어 이주한 청소년들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Beau et al. 2007).

이처럼 중도입국청소년들이 겪는 부모와의 분리 경험은 단순한 문화적 적응 문제를 넘어, 정서적 외상, 특히 애착외상(attachment trauma)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애착외상은 Allen(2005)이 제안한 개념으로 부모나 주요 양육자 같이 정서적으로 깊은 의존 관계를 맺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외상 경험을 지칭한다. 이 외상은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오히려 공포, 방임, 거부, 학대의 원천이 될 때 발생한다. 이러한 애착외상은 생존적 차원에서 기본 신뢰를 형성해야 하는 시기에 지속적 정서적 위협이나 심리적 부재를 경험하면서, 심리적 불안정성, 자존감 저하, 관계의 어려움,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애착외상은 부모와의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은밀하게 진행되며,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그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 ‘감춰진 외상(hidden trauma)’으로 간주되기도 한다(Lyons-Ruth et al. 2006). 특히, 중도입국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방임과 정서적 단절은 이러한 애착외상의 대표적 양상으로, 이들의 내면적 고통을 이해하는 핵심적 접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내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연구들은 주로 문화 적응, 언어 교육 등 외재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들의 심리적 내면적 정서 경험을 다룬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김현숙 2021), 이를 애착외상의 차원에서 본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가족과의 경험을 다룬 일부 연구조차도 사회문화적 적응이나 교육 문제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다루어졌으며(이수진·김현

주 2016), 양적 연구(양계민·조혜영 2011)나 내용 분석 위주의 질적 접근(최영미·송영호 2020)이 주를 이루어 중도입국청소년의 애착 경험의 본질을 깊이 있게 조명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애착외상의 관점은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며,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적 고통에 대한 보다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다.

나아가 애착외상의 관점은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상담이나 심리적 개입에 있어서도 기존의 문화 적응 중심 접근과는 다른 심층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들은 단지 문화나 언어의 문제를 넘어, 관계의 단절과 애착 손상이라는 깊은 정서적 결핍을 지니고 있으므로,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 개입에서도 정서적 복원과 회복적 관계 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특수한 성장배경 및 환경은 한국 입국 이후 새롭게 구성된 가족 내에서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여 공동체 내 조화로운 통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배상률 2016; 박봉수 외 2013). 특히, 이들의 외상 경험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건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들의 삶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정책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 다수가 비자발적인 부모와의 분리를 경험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들의 애착외상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descriptive phenomenology)을 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현상학은 연구 참여자의 생활세계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며 그 경험에 내재된 의미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접근으로(신경림 외 2004), 중도입국청소년의 애착 경험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 본 연구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의 애착외상 경험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이들의 심리적 회복과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중도입국청소년의 애착외상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1) 중도입국청소년의 개념과 부모와의 분리 경험

국내 다문화 자녀에 대한 연구는 2010년경부터 시작되었으나, 대부분은 ‘국내’ 출생 다문화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김재훈·김민선 2021). 연구 초기에는 다문화가족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중도입국청소년은 일반적인 이주배경청소년과 함께 다뤄지거나, 중도입국청소년을 포함한 포괄적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외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해 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중도입국청소년은 국내 출생 다문화 자녀와는 다른 정체성과 경험을 가지며, 이에 대한 독립적이고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겪는 언어 문제, 학업 및 문화 적응, 사회 적응 등 이주민으로서의 한국사회 정착 문제가 핵심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김효정·조규필 2018). 주요 주제로는 학업관련 적응문제 및 한국어 미숙으로 어려운 학교진학의 문제와 진로문제(김민아 외 2014; 류방란 외 2011; 신영권 2016; 이형하 2017), 한국사회로의 적응문제(김효정·조규필 2018; 엄명용 2013), 심리적 적응(양계민·조혜영 2011), 가족문제(남부현·김경준 2018; 석희정·하춘광 2015; 이수진·김현주 2016; 장명선·송연숙 2011)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족문제나 심리적 고통을 다룬 연구들 중 일부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겪는 장기간의 별거 경험과 정서적 어려움을 다루고 있다. 고은혜와 배상률(2017)은 전국의 중도입국청소년 5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2%가 3년 이상 부모와의 별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입국 전 부모와의 별거 기간은 삶의 만족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비자 발급 지연, 체류 자격 문제, 부모의 이혼 및 재혼, 경제적 곤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10년 이상 부모와 별거한 사례도 보고되었다(배상률 2016). 이러한 별거경험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낮추고, 새로운 가족과의 갈등을 증폭

시켰으며, 정신건강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박봉수 외 2013; 배상률 2016). 중도입국청소년은 입국 전까지 조부모, 친척 또는 시설 등에서 자랐으며, 부모와 정서적 유대 없이 성장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입국 후 부모와 재회하더라도 애착 형성이 어렵고, 신뢰의 기반이 약하여 관계 형성에 심리적 갈등을 겪는다. 이들의 분리 경험은 분노, 원망, 그리움, 정체감 혼란, 심리적 고립 등 복합적인 정서 반응으로 이어진다(이수진·김현주 2016). 김재훈 등(2021)은 중도입국청소년이 부모와의 재회 이후에도 정서적 거리를 좁히기 어려워하며, 부모에 대한 애증이 반복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입국이 자발적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 사유로 ‘한국에 있는 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양계민·조혜영 2011). 게다가 중도입국청소년의 40%는 삶의 행복 조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으며, 이는 ‘경제력’을 선택한 비율(18%)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였다(배상률 2016).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 문제가 단순히 언어나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즉 애착 경험에 근본을 둔 심리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아동 또는 초등학교생이거나 국제결혼을 하여 한국에 오게 된 성인 여성 중심의 연구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 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을 별도로 조명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그러나, 중도입국청소년은 이주 과정에서 부모와의 비자발적인 분리를 경험하고, 가족의 해체 및 재구조화라는 고유한 정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다문화 자녀나 성인 이주민과 동일한 관점으로 접근하기 어렵다(김은경·김현주 2017). 게다가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 연구의 초기에 초점을 맞추었던 ‘아동기’ 대상 집단은 이제 대부분 후기 청소년기 또는 초기 성인기에 진입한 상황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교육부의 다문화 교육 정책은 여전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교육부 2022) 향후 다문화가정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이나 청년 중심의 연구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이 된 중도입국청소년을 애착의 관점에서 그 심리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2) 중도입국청소년의 애착외상(Attachment Trauma) 경험

외상(trauma)은 단순한 신체적 충격에 국한되지 않으며, 개인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리적 충격 경험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외상이란 일반적으로 전쟁, 폭행, 따돌림 등 삶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건을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사건 자체의 객관적 심각성보다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고통과 충격이 외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특히, 애착외상(attachment trauma)은 Allen(2005)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부모-자녀처럼 정서적 의존도가 높은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외상으로 정의된다. 주요 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외상으로, 발달 초기 혹은 관계 형성의 결정적 시기에 부모로부터 정서적 돌봄이 단절되거나 방임될 때 나타난다(Lyons-Ruth et al., 2006).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정서적 고통은 외상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Juang et al., 2018), 특히 이주 과정에서 부모와의 분리 경험은 안전감의 상실로 이어지는 외상적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Suárez-Orozco et al.(2002)은 중국, 중앙아메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멕시코 출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종단연구에서, 응답자의 4분의 3이 이주 과정에서 부모와 분리되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부모와 분리된 청소년은 분리되지 않은 또래보다 이주 후 불안과 우울 증상을 경험하였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도 더 자주 나타남을 보고 한 바 있다. 이는 부모와의 분리 경험 자체가 하나의 외상 사건임을 시사한다. Juang et al.(2018) 역시 이주로 인한 분리 경험이 외상임을 주장하며, 이주 스트레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 '애착' 개념이 핵심적인 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이주 이후의 적응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애착 손상의 회복이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이 겪는 이주의 경험은 기본적인 돌봄의 부재와 이로 인한 외로움, 고립감, 버려짐이라는 정서적 신호에 무반응한 심리적 방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애착외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연구들은 주로 문화적 적응, 언

어 교육, 학업 적응 등 외현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김현숙 2021), 이러한 심리적 고통을 애착외상의 틀 안에서 다룬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없으며, 이들의 내면적 정서 경험, 특히 애착외상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다수가 비자발적인 부모와의 분리 경험을 겪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의 경험을 심리적 외상, 그중에서도 애착외상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심층적인 이해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 대상자의 수가 3-10명으로 권장됨에 따라(Dukes 1984), 중도입국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연구문제에 대해 가장 잘 진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의도적 표본추출방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으며, 부족한 인원은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응답자들이 동일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눈덩이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이에,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기관 및 대안 학교 등에 참여자 선정을 의뢰하였으며 참여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현재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에서 성장 과정을 거치고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으로 한국인과 재혼하게 되어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경우, 둘째, 부모님의 재혼으로 인해 부모와의 분리를 1달 이상 경험한 적이 있으며, 주관적으로 부모님과의 분리로 인해 주관적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고, 셋째, 만 1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의 청소년인 경우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모집된 대상자의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구분	성별	연령	현재 국적	태어난 국가	별거기간	별거시기
참여자1	남	22	중국	중국	8년	모(유치원)
참여자2	남	22	한국	중국	2.5년	모(9~11세)
참여자3	여	19	한국	베트남	17년	모(4개월~10세)
참여자4	남	19	한국	베트남	10년	모(4세~중1)
참여자5	여	21	한국	베트남	약 7년	모(9세)
참여자6	여	24	한국	중국	3년 반	모(14세)
참여자7	여	24	중국	중국	부(10년), 모(7년)	부(유치원), 모(17세)
참여자8	남	24	중국	중국	부(20년), 모(5년)	부(0세), 모(10세)
참여자9	남	20	중국	중국	13년	모(0~13세)

(2)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에 대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제공하였고, 참여 의사를 밝힌 참가자들이 연구참여자로 적합하지 확인하는 절차를 걸쳤다. 인터뷰는 1~2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각 50분 정도 소요되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분석은 Giorgi의 현상학이 제안하는 4단계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1단계인 전체의 인식 단계는 녹음된 면담 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전사한 후 전사된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로, 중도입국청소년의 애착 경험에 대하여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며 이해하고자 하였다. 2단계는 의미 단위(natural meaning unit)의 구분 단계로 텍스트를 의미 단위로 구성하는 단계이다. 의미의 행간을 읽기 위해 연구자의 선입견을 줄이고 판단중지를 유지하며 참여자의 언어를 최대한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경험이 왜곡되지 않고 진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연구자 2인이 각각 자료를 분석한 후에 분석된 자료를 비교하며 의미 단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3단계는 전 단계에서 구분한 모든 의미 단위를 검토하여 일상적인 표현을 학문적 용어로 표현하는 단계

이다. 연구자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애착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해가며 의미 단위들의 공통점을 비교 대조해가며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도출하였다. 4단계는 의미 단위 간 관련성을 찾아내고 일반적 구조적 기술로 통합하는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의미 단위간의 관련성을 기반으로 드러난 주제 및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학문적 용어나 참여자의 진술을 토대로 도출된 범주의 특성을 구체화하였다. 자료분석은 본 연구의 공동연구자 2명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자 두 명 모두 상담전공 교수로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강의한 경력이 있으며 다수의 질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분석된 자료는 질적 연구를 다수 경험해본 경험이 있으며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연구경험이 많은 상담학 전공 교수 1인에게 검토를 받았으며, 자문 받은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들이 재확인하여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서로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나눔과 동시에 재확인 과정을 통하여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4) 연구의 엄격성

질적연구에서의 엄격성이란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Lincoln와 Guba(1985)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위하여 자료 분석 시에 모호한 부분은 추가적인 질문 및 인터뷰 연락을 통하여 참여자에게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중립성 유지를 위하여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 외상 등과 같은 키워드를 통하여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가정과 편견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구자들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가족 배경에 대해 “불안정한 가정환경을 경험했을 것이다”, “재혼가정이나 단절된 부모-자녀 관계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 것 같다”, “부모에 대한 원망이 클 것 같다” 등 다양한 선입견과 편견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자신이 중도입국청소년을 동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음을 자각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에 대한 무의식적 낙인을 경계하고, 해석과 분석 과정에서 이러한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성찰하며 지속적으로 주의하였다. 연구 전반에 걸쳐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분석 과정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일관성이란 같은 방법으로 연구 수행시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연구자 2명이 각각 자료를 분석한 뒤 만나서 여러 차례 논의하면서 자신의 선입관이나 편견 등이 분석에 반영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 및 연구 참여자가 아닌 전문가에게 결과를 확인받는 감수과정을 거쳤다.

4. 결과

본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애착외상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연구 결과, 17개의 본질적 주제, 37개의 드러난 주제로 나타나 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애착외상 경험에 대한 드러난 주제, 본질적 주제

대분류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어린 시절의 외상경험	친척들의 손에 자란 어린 시절	나 홀로 남겨져 친척 집을 전전함
		함께 지내던 양육자의 재혼으로 다시 한번 혼자가 됨
	함께 지낼 수 없게 된 부모에 대한 그리움	떨어져 지내는 친부모가 그리움
		친구들 가족의 화목한 일상이 부러움
	부모에게도 마음을 기댈 수 없음에 분노함	자신을 잘 돌봐주지 않았던 부모님에 대한 분노
	부모님과 소원하게 지내움	
본국을 떠나 낯선 한국으로	떠나고 싶지 않은 본국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 원가족
		친척과도 관계가 끊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본국에서 함께 생활했던 가족이나 친구들과 떨어져야 하는 슬픔을 경험 함
		익숙하고 그리운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의 생활이 막막하고 염려됨

대분류	본질적 주제	드러난 주제
중도 입국 이후 가정생활	중도입국 이후 떨어져 지내던 부모와 재혼 가정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하면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	새로운 가정 안에서 외로움을 경험 함
		가족들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함
		새로운 가족에게 마음을 열기 어려움
	중도입국 가정에서 경험하는 현실적인 문제들	부모님이 생계로 바쁘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움
		한국에서의 재혼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과 언어 문제로 소통이 어려움
		떨어져 지내던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갈등에 부딪힘
중도입국 이후 적응의 위험요인	새로운 언어를 익히기 어려움	소통의 어려움
		언어문제가 또래관계 문제까지 이어짐
		언어 문제로 인해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움
	친구들과의 관계 어려움	왕따를 경험함
		친구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움
	인종차별 문제	본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느낌
		발음 문제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됨
		정체성이 혼란스러워 짐
	학업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진로와 학업을 지원해 줄 가족 자원이 부족함
중도입국 이후 적응의 보호요인	친구들의 지지	이성친구와 교제하며 정서적 지지를 받음
		친구들이 적응에 도움을 줌
	학교의 지원	한국어 센터 및 다문화 학교가 적응에 도움이 됨
		선생님의 지지
	새로운 가족 안에서 적응되어 감	헤어졌던 부모를 다시 만나 케어를 받음
		새아버지나 새어머니가 잘 대해주심
	자율적인 노력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감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며 견뎌
	종교 생활	종교에 의지함
		종교 공동체의 지지

1) 중도입국 청소년의 애착외상경험 상황적 구조

(1) 어린 시절의 외상경험

① 친척들의 손에 자란 어린시절

나홀로 남겨져 친척 집을 전전함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원가족으로부터 홀로 남겨져 친척집을 전전하며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참여자 3은 엄마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이후로 엄마가 누나만 데리고 한국으로 가시게 되어 할머니, 고모, 아버지 집으로 계속 옮겨다니며 지냈다고 구술하였고, 연구참여자 4는 어머니가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며 돈을 버시느라 베트남에 들어오지도 못하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아버지와 할머니, 고모 삼촌 등의 도움을 받아 지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8은 어릴 때 부모님 이혼 후 어머니와 지내다가 어머니가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가시게 되어 할머니, 할아버지와 지낼 수 밖에 없었다고 구술하였다.

“제가 그때 제가 친누나한테 들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가 바람 피웠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아버지한테 들키고 그래서 계속 싸우다가 맨날 맨날 싸우다가 그때 저희 누나가 말했어요. 계속 이렇게 싸울거면 그냥 이혼하라고. 그래서 그 후로 시간잡아서 이혼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떨어져 살았죠. 저는 이제 너무 어려서 할머니한테 가고 저희 누나는 어머니랑 한국으로 갔어요.”(연구참여자 3).

함께 지내던 양육자의 재혼으로 다시 한번 혼자가 됨

연구참여자들 가운데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한부모와 지내다가 함께 지내던 양육자가 재혼을 하면서 다시 한번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참여자 1은 어머니가 재혼하신 이후 혼자 남게 되어 큰이모가 엄마 역할을 대신 해주셨다고 구술하였고, 연구참여자 2는 엄마가 연애하고 결혼한다는 것을 비밀로 해서 나중에 알게 되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외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참여

자 4는 아버지가 재혼해서 동생을 낳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다시 보내졌는데 슬펐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아보기도 하였다.

“솔직히 이제 저는 베트남에 사는 게 더 익숙한데 아빠가 재혼하셔서 좀 힘들었어요. 동생도 생겨 가지고 그래서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저는 (한국에 계신) 엄마한테 가는 것을 결심했어요.”(연구참여자 4).

② 함께 지낼 수 없게 된 부모에 대한 그리움

떨어져 지내는 친부모가 그리움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떨어져 지낼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호소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엄마가 이혼하시고 한국으로 간 뒤 엄마를 못 본다는 생각에 보고 싶어 슬펐고, 친부를 만나면 친권은 없음에도 친아버지이기 때문인지 이유 없이 좋았다고 구술하였다. 연구참여자 8도 어머니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가셔서 일 년에 한 번 정도밖에 볼 수 없었기에 어머니가 항상 그리웠다고 하였다.

“중국에서는 낚시도 하러가고 그랬어서 좋았어요. 그냥 아빠잖아요. 그냥 좋았어요.”(연구참여자 2).

친구들 가족의 화목한 일상이 부러움

연구참여자들은 자신과 함께 지낼 수 없게 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호소하며 친구들의 화목한 일상을 대해 부러움을 느끼곤 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친구들이 엄마에게 잔소리 듣는 모습, 부모님과 편하게 대화하는 모습에 부러운 마음을 느꼈다고 구술하였고, 연구참여자 3은 다른 친구들은 가족들과 여행가고 밥먹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자신은 즐거운 생활을 경험해본 적이 없었다며 친구들에 대한 부러움을 드러내었다.

“친구들한테 놀러 가면 엄마가 와 가지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

게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부럽긴 했죠.”(연구참여자 2).

③ 부모에게도 마음을 기댈 수 없음에 분노함

자신을 잘 돌봐주지 않았던 부모님에 대한 분노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님의 잘못으로 이혼과 재혼을 거듭하면서 자신을 잘 돌봐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를 호소하였다. 연구참여자 3은 어머니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신 후 자신의 곁에 항상 없었다고 구술하였는데, 가령 생일이 되어도 아버지는 돈만 보내고 생일 축하한다는 말도 해주지 않아 이러한 부모님의 태도를 용서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7은 어머니가 힘드셔서 평소에 공감을 잘 받지 못했고, 늦게 들어와도 다른 친구들과 달리 연락도 한번 하지 않으셔서 ‘나를 사랑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고 구술하였다. 연구참여자 8은 아버지가 이혼 전부터 직장도 없으시고 책임감도 없으셔서 가족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였다.

“그냥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했죠. 이제 다른 부모님들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을 할 때도 있었는데 <중략> 그거에 대한 의문도 사실 힘들었던 것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7).

부모님과 소원하게 지내음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님의 이혼 뒤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심리적으로도 소원하게 지낸 경우가 많았다. 연구참여자 5는 엄마가 이혼 후 떨어져 지내서 그리웠지만 다시 만났을 때 낯설고 어색한 기분이었다고 구술하였고, 연구참여자 8 또한 친아버지가 한국에 돈을 벌러 가서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지낸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 중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도 어색하고 불편했다고 하였다. 어머니 또한 혼자 한국에서 돈 벌러가셨을 때 일 년에 한 번 씩 오셔서 한달 정도 체류하다 다시 한국으로 가셨는데 오시면 좋기도 했지만 느낌이 어색하기도 하고 거리감이 느껴졌다고 구술하였다.

“어릴 때는 아버지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중략> 그때는 그냥 어머니가 저를 안고 저 사람이 아빠다 이렇게 아빠 부르라고 이렇게 했던 데 <중략> 저는 완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 가지고 좀 어색하고 그냥.”(연구참여자 8).

④ 훌훌단신처럼 살아가기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 원가족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 더 이상 자신을 찾지 않는다고 구술하면서 서글픔을 호소하였다. 연구참여자 3은 어머니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시고 연락이 끊겼는데 자신이 한국에 왔는데도 찾으러 오지도 않아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고 하였고 연구참여자 2는 아버지가 이혼 후 원래도 자신을 잘 찾지 않아 양육권을 포기하고 새 아빠에게 친권이 넘어갔을 때조차 별다른 생각이 없이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연락만 주고 받았다고 구술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7도 부모님의 무관심에 대해 원망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였는데,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가 계신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방학 때 중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가려고 하면 어머니는 와도 돼고 안와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셔서 부모님이 자신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구술하였다.

“알아줄 것까지는 없는데 뭐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뭔가 너무 그냥 그러니까 너무 저한테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되나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뭔가 제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은 연락도 잘 없고 그냥 예를 들어 방학에 중국에 가는데 보통은 다 가는데 제 주변 유학생들은 근데 뭔가 엄마는 그냥 와도 되고 안와도 되고 이런 이런 입장이시고 그냥 그런 거에서 느껴지는 서운함인 거죠.”(연구참여자 7).

친척과도 관계가 끊김

연구참여자들 가운데는 부모님 이혼 후 그나마 연락하며 지냈던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기고 형제자매와도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내기도 하였다.

“그동안 누나랑은 별로 연락이 없었어요. 그냥 그냥 명절 때 간단하게 인사 좀 하고 뭐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물어보고 네 그런 게 다였어요. 평소에는 별로 연락안해요. <중략> 고모밖에 없었어요. 그때는.”(연구참여자 3).

(2) 본국을 떠나 낯선 한국으로

① 떠나고 싶지 않은 본국

본국에서 함께 생활했던 가족이나 친구들과 떨어져야 하는 슬픔을 경험함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님 이혼으로 인해 본국을 떠나 낯선 나라에 적응을 하다 보니 함께 생활했던 가족이나 친구들과 떨어져야 하는 슬픔을 경험해야 했다. 연구참여자 3은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고모와 주로 살았는데 나중에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가야 했을 때 고모나 함께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떨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오기 싫었다고 구술하였고, 연구참여자 4는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와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동생을 낳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어머니에게 다시 보내졌는데, 익숙한 환경을 두고 떠나야 하는 마음이 슬펐다고 구술하였다. 연구참여자 8 또한 한국에 중 3때 오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한국으로 가자고 할 때 한국 가면 친구도 없을 것 같고, 가족도 못 보고 외로울 것 같아서 너무 싫었다고 하였다.

“다른 나라로 가는 거라서 좀 슬프죠. 그때는 좀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떨어지고 한국으로 오고 그때는 제가 한국어도 이렇게 잘 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언어도 문제고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있어서 그때도 좀 걱정이 됐죠.”(연구참여자 3).

익숙하고 그리운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

연구참여자들은 낯선 나라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본국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간절했다. 연구참여자 2는 처음 한국에 입국할 때 해외여행을 가는 줄 알고 좋아했다가 중국에서 양육해 줄 사람이 없으니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전해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고 구술하였고, 연구참여자 5는 한국에 와서 엄마, 새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새아빠와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구술하였다. 연구참여자 6은 처음에는 다시 중국에 가고 싶어서 엄마와 싸우기도 했으나 엄마는 주로 혼내셨고, 보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적응하며 지낼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중국 가고 싶었었어요. 왜 한국으로 불렀지? 생각하고.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5).

②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의 생활이 막막하고 염려됨

연구참여자들은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적응을 해야 한다는 막막함과 두려움에 휩싸이곤 했다. 연구참여자 2는 처음에 한국에서 살아야 된다고 들었을 때 한국어를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을 느꼈다고 구술하였고, 연구참여자 3은 자신이 조선족이다 보니 발음도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투리와 비슷해서 한국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 염려되고 걱정되었다고 하였다.

“처음에 제가 오기 싫었어요. 제가 오면 저 친구도 없고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기 싫었고요”(연구참여자 6).

(3) 중도입국 이후 가정생활

① 중도입국 이후 떨어져 지내던 부모와 재혼가정에서 함께 생활을 시작하며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

새로운 가정 안에서 외로움을 경험함

연구참여자들은 중도입국 이후 떨어져 지내던 부모와 재혼 가정에서 함께 생

활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재혼 가정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는데 새아빠와 청소년기에 갈등을 겪어 소리 지르며 크게 싸우기도 하고 이복 형제들 간에도 갈등을 경험하였다. 엄마의 친자녀는 4남매 중에 자신밖에 없다 보니,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생기면 어머니와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외로움을 느끼곤 하였다.

“아빠도 소리 지르고 이제 저도 소리 지르고 그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도 옆에서 이제 같이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엄마 친자식 이잖아요. 이제 아빠가 뭐라하면은 이제 엄마 옆에서 실드쳐주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중략> 그때까지만 해도 싸움할 때마다 그냥 나는 여기 나하고 엄마 밖에 없구나 그냥 딱 이 생각이었으니까.”(연구참여자 2).

가족들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함

연구참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 갈등이 심하거나, 떨어져 생활하다 보니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특히 부모님의 재혼으로 새로운 가족에게 심리적으로 의지하기 어려워 지다 보니, 무엇을 사달라고 한다거나 요구하지 못하였고, 다른 가족들에게 얹혀 살아간다는 생각때문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말하지 못했다고 구술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어머니가 재혼 생활조차 원만하지 않으셔서, 혼자 3남매를 키우시느라 심리적으로도 지치고 신체적으로도 병이 있으셨는데, 힘들게 지내시는 어머니에게 더 짐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하였고, 연구참여자 5는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 어머니가 2번 재혼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낯선 환경에서 지내야 했기에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 보다는 부모님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집안일을 하면서 지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7의 경우에도 부모님 이혼 후 8년이 지난 시점에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따라 왔지만 경제적 지원을 해주실 것 같지 않아 말을 꺼내보지도 못했다고 구술하였다.

“그때는 제가 최대한 저희 가족에게 불필요한 고민을 좀 주지 않고 싶었어요.

그때는 그랬을 때 제가 좀 제가 알아서 좀 해결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새 엄마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서요. <중략> 꽤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할머니 집에서 살았고 이모한테도 넘기고 고모한테 가서 그래서 자주 자주 옮기다 보니까 다른 집에 사는 느낌이잖아요. 진짜 다른 집에 사는 느낌이라서 최대한 그 사람들한테 좀 불편한 느낌을 안주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좀 불필요한 고민을 주기도 싫었고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3).

새로운 가족에게 마음을 열기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의 재혼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새로운 가족에게 마음을 열기 어려웠다고 호소하였다. 연구참여자 3은 한국에 아버지를 따라 입국해서 새엄마와 함께 살고 있지만 소통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지는 않는다고 구술하였다. 새어머니가 잘해주는 편이지만 거리가 있고 이복형과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따로 사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4 또한 어머니가 재혼하시고 자녀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정에 적응이 필요했다고 구술하였다. 베트남에서 계속 살다가 한국에 와서 엄마, 새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기 때문에 낯설어서 잘 이야기 나누기도 어려웠다. 한편, 연구참여자 7은 부모님 재혼 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왔지만, 아버지와도 10년 만의 재회이다보니 친근하지 않고 새어머니도 어색해서 결국 따로 살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였고, 연구참여자 8은 어머니가 재혼하신 새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7~8년째 살고 있으나 할 이야기가 없어서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지낸다고 하였다.

“새 엄마는 저한테 평소에 잘해줘요. <중략> 잘 해줬는데 고맙긴 고마운데 그래도 가족은 아니라 새엄마라서 그렇고 형이랑도 별로 말을 안해요. <중략> 그냥 같이 같이 산다고 해서 평소에 별로 말도 안 하고 같이 놀지도 않고 그냥 따로따로 사는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3).

② 중도입국 가정에서 경험하는 현실적인 문제들

부모님 생계로 바쁘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움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생계로 바쁘시다 보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구술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재혼하신 어머니와 함께 지내기 위해 10살에 한국에 들어왔지만 어머니의 직장일로 인해 중학교때 이외에는 함께하지 못했으며, 힘들 때 엄마에게 위로를 받고 싶지만 엄마가 바쁘시고 서로 대화가 많은 편이 아니어서 아쉬웠다고 구술하였다. 연구참여자 5는 한국에서 엄마, 새아버지와 함께 살며 두 분 다 바쁘시다 보니 집안일도 많이 해야 했고, 학교를 다니면서 어머니의 편의점 일을 도우며 지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7 또한 한국으로 오게 된 이후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서 감당하였다고 구술하였다.

“엄마랑 제가 10살 때까지는 베트남에서 큰 이모랑 그냥 함께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그때도 조금 떨어져서 살다가 중학교 3년만 엄마랑 같이 살고 동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떨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중략> 이혼하시고 그때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한국으로 빨리 가서 돈도 벌고 그래야 먼저 빨리 한국으로 가시고.”(연구참여자 1).

한국에서의 재혼가정에서 가족구성원들과 언어문제로 소통이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의 재혼가정에서 가족구성원들과 언어문제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한국어가 잘 안되다보니 원하는 바를 이야기 하기 어려워 재혼한 아버지와 데면 데면하게 지냈고, 아버지쪽에서 데려온 이복 형제들과도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다 보니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구술하였다.

“2014년 15년쯤일 때 이제 한창 컴퓨터 게임이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데 이제 어느 정도는 서툴러서 그런거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형들은 컴퓨터 게임 하는 데 저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언어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형들은 이제 계속 게임하고 저는 그냥 tv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말도 잘

거의 안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죠.”(연구참여자 2).

떨어져 지내던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갈등에 부딪힘

연구참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떨어져 지낼 수 밖에 없었던 부모와 다시 생활하게 되면서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참여자 2는 성적이 나빠서 새아버지로 부터 노력이 부족하다고 자주 혼이 나서 힘들었다고 구술하였고, 엄마도 한국에서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식의 잔소리를 많이 하셔서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4 또한 아버지와 어릴 때부터 계속 살면서는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하지 않으셔서 편했는데, 한국에 와서 어머니와 살게 되면서는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셔서 힘들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7도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와 떨어져 지낸 지 8년이 지난 뒤에 만나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딱히 유대관계가 있지는 않아 한국에서 만나도 특별한 감정이 들지는 않았고, 한국에서도 같이 지내다보니 갈등이 찾아지고 불편해서 따로 지내게 되었다고 구술하였다.

“낮선 느낌이 있어서 잘 얘기 나누지도 않아요. 엄마한테도 그렇고 <중략> 좀 어색하고 좀 잘 서로 이해 안 하니깐 좀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연구참여자 4).

(4) 중도입국 이후 적응의 위험요인

① 새로운 언어를 익히기 어려움

소통의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중도입국 이후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데 다양한 위험요인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새로운 언어사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인들과 소통이 어려웠는데(연구참여자 1, 2, 6, 8) 연구참여자 1은 초등학교 때 처음 낯선 나라에 와서 한국어가 어려워 친구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구술하였고, 연구참여자 8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다문화 예비학교에서 반년 동안은 괜찮았으나 중학교로 입학한 이후에는 한국 학생들과 말도 안통하고 해서 거

의 혼자 다니곤 했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한국어 잘 모르다가 그래서 친구들 말이나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걸 좀 당황하고.”(연구참여자 1).

언어문제가 또래관계 문제까지 이어짐

이러한 언어문제는 연구참여자들의 또래관계까지 문제로 이어졌다. 연구참여자 1은 처음 입학한 초 3때는 언어 문제로 인해 거의 말 없이 가만있다가 4~5학년때 되어서야 소수의 친구들과 어울리 수 있게 되었다고 구술하였고, 연구참여자 3은 발음 문제도 인해 친구들로 하여금 비웃음 거리가 되곤 해서 친구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혼자서 할 일이 없다보니 학교 끝나면 주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었다.

“발음에 대해 좀 많이 저를 비웃었고요. 그때 발음에 문제도 있었고 그게 주요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때 아직 완전히 적응한 게 아니라서요. 그때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연구참여자 3).

언어문제로 인해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언어문제로 인해 학업 문제에도 어려움을 느꼈다. 연구참여자 1은 대학에 와서 학업을 따라가는데 언어도 어렵고 공부 방법도 잘 몰라서 힘에 부쳤다고 구술하였고, 연구참여자 2 또한 한국어를 잘 못알아 듣다보니 한국어 수업이 어려웠고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한국말을 배웠어도 잘 이해되거나 숙지되지 않고 금방 잊게 되어 학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한국 국적이 되었으니 어떻게든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한국어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 연구참여자들은 수치심까지 경험하고 있었다.

“친구랑 있을 때는 이런 말을 안 하죠. 어쨌든 근데 저는 어쨌든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후에도 10년이나 살았는데 11년 친구한테 이런 말 보면 뜻을 잘 이해 못해요. 그런데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되게 좀 부끄럽더라고요.”(연구참여자 2).

② 친구들과의 관계 어려움

친구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중도입국 이후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다가가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구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에서 대화할 친구가 없어서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였는데(연구참여자 1, 3) 시간이 지나면서는 누군가가 자신을 챙겨주는 것이 오히려 불편해 지기도 했다고 구술하였다(연구참여자 3).

“제가 친구를 별로 못 사귀어서 제가 평소에 학교 끝나고 제가 책을 읽는 곳에 들렀어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도 무슨 알바도 좀 하고.”(연구참여자 3).

③ 인종차별 문제

본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느낌

연구참여자들은 중도 입국 이후 본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느껴 힘들었다고 구술하였다. 연구참여자 3은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 보니 친구들이 중국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고, 연구참여자 4는 한국사람들은 정이 없게 느껴지고 차별을 해서 한국에서의 삶이 외롭다고 호소하였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성인들은 아마 좀 사회에 나와서 그래서 좀 그래도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좀 어린애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무슨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잖아요.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중국인을 보면 좀 차별하거나 그런거 많잖아요. <중략> 일단 보고가 제가 제가 제 발음 문제 때문에 무슨 다른 문제도 있고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

게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중국에 좀 약간 그런 욕하는 그런 그런 게 있잖아요.”
(연구참여자 3).

발음 문제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 보니, 발음이 이상해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풍길 것 같은 생각에 스스로 발음도 교정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 하였다고 구술하였다.

“그렇죠. 일단 제가 제 언어 발음 문제도 있고 처음으로 들어와서 제가 중국인으로서 약간 좀 차별받는 것도 있고요.”(연구참여자 3).

정체성이 혼란스러워 짐

연구참여자들은 중도입국 이후 한국 국적이 되었지만 자신은 한국인도 아니고 유학생도 아니라고 느끼곤 하였다. 자신의 정체성까지 혼란스러워 지면서 어릴 때 살던 본국으로 돌아가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왜냐하면 저는 좀 지금 한국 국적이니까 한국인도 아니고 유학생도 아니에요.”
(연구참여자 4).

④ 학업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연구참여자들은 언어가 능숙하지 못하다보니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학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연구참여자 1은 대학 입학 후 모르는 사람과 조별로 하는 팀과제를 잘 할 수 있을지 염려하였고 구술하였고, 연구참여자 6은 초등학교 6학년때 한국에 들어왔으나 언어 문제로 인해 5학년으로 진학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대학교 때 과제 팀 과제 많이 하잖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랑 하면 어찌지 그런

거 고민이 되고.”(연구참여자 1).

진로와 학업을 지원해 줄 가족 자원이 부족함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부모님이 모두 생계로 바쁘시고 직장을 다니시다 보니 학업이나 진로 결정에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고 구술하였다.

“초등학교때 엄마는 일 때문에 저를 잘 봐도 되고 한국어도 연습시키기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연구참여자 1).

(5) 중도입국 이후 적응의 보호요인

① 친구들의 지지

이성친구와 교제하며 정서적 지지를 받음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님이 바쁘시다 보니 부모님보다 친구나 이성 친구로부터 더 많은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1은 엄마가 공감보다는 지적을 하시는 편이라 힘들 때 위로가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남자친구나 친구에게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지냈다고 구술하였고, 연구참여자 6은 처음에는 한국에서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중학교 지나면서 친구를 조금 사귀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가서는 여자친구가 생겨서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1년 다니고 나서 제가 일반 고등학교 재미도 없고 공부만 하니까 그런 거에 아는 친구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여자친구 사귀었어요. 그 여자친구 고등학교가 00(다문화 대안학교)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옮겼어요.”(연구참여자 6).

친구들이 적응에 도움을 줌

연구참여자들은 또한 중도입국 이후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구술하였다. 발음이 좋지 않아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웠을 때

친구들이 자신의 발음을 신경 쓰지 않고 한국어를 잘못 사용했을 때 정정해 주기도 하면서 도와 주기도 하였고(연구참여자 3) 학교나 학원, 한국어 교실 등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친구들과 가까워 지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6, 8) 연구참여자 5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조용하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편이었으나, 고등학교에서 친구들이 다가와서 친해지다 보니, 지금은 친구들에게 먼저 말걸고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구술하였고, 연구참여자는 친구들과 하교 후 맛있는 것을 먹는 등 사소하게 나누는 교제가 큰 힘이 되었다.

“일단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발음이 좀 달랐죠. 제가 발음이 달라도 그 친구들은 별로 신경을 안썼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놀면서 무슨 제가 한국어를 쓰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요. 저희 친구들이 저한테 좀 알려주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발음도 좀 알려줬고요. 학교 끝나고 또 어디가서 맛있는 거 좀 먹고 그런 거 있었죠 같이 놀고”(연구참여자 3).

② 학교의 자원

한국어 센터 및 다문화 학교가 적응에 도움이 됨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 학교나 외국인들만 다니는 학교, 한국어 센터 등에 진학 후 한국에서의 적응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구술하였다(연구참여자 1, 3, 5, 4, 8) 연구참여자들은 다문화 학교나 외국인 학교에서는 학생들 수준을 고려해서 조정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중학교 때는 그냥 그냥 좀 참고 넘어갔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중학교에 대해 좋은 기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와서 좀 많이 편해졌어요. 그때 <중략> 같은 친구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게 다문화 학교라서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좀 조정을 많이 했어요. 학생들 수준에 맞게 교육을 받았어요.”(연구참여자 3).

선생님의 지지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도움이 한국에서의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구술하였다. 선생님들은 평소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진로 문제도 이야기 나눠주셨고, 진로 정할 때 심리검사나 상담도 안내 해 주셔서 학과 정할 때도 도움이 되었다(연구참여자 3, 8) 또한 연구참여자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선생님들께서 늘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정서적으로 큰 힘이 되었다(연구참여자 3, 5, 8). 평소에 고민도 나눠주시고 장학금도 챙겨주시는 등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8은 가장 힘들었을 때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회상하였다.

“어려움 어려 뭘가 어려울 때는 전화해도 바로바로 <중략> 저희 선생님은 그냥 주말에 전화해도 다 받아주시고 이제 일이 있으면 다 받아주시고.”(연구참여자 8).

③ 새로운 가족 안에서 적응되어 감

헤어졌던 부모를 다시 만나 케어를 받음

연구참여자들은 비록 원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았으나 다시금 헤어졌던 부모를 만나 케어를 받으면서 힘을 받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2는 엄마가 맛있는 걸 사주니 그간의 감정을 좀 잊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다시 적응해 갔다고 구술하였고, 연구참여자 8은 한국에서 어머니와 다시 함께 살게 되면서 밥도 잘 챙겨주시고 옷도 잘 챙겨주셔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 3은 혼자 지내면서 가족이 없다고 느꼈으나, 부모대신 고모가 많이 챙겨주셔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느끼기도 했다고 하였다.

“그냥 타로 어머니처럼 이제 밥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해주시고 그냥 저녁도 해주시고. <중략> 어머니의 사랑이 좀 느껴져요.”(연구참여자 8).

새아버지나 새어머니가 잘 대해주심

연구참여자들은 재혼가정에서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비록 친부모는 아니었지만 새아버지 또는 새어머니가 잘 대해주시고 지지해주셔서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구술하였다. 연구참여자 3은 새어머니가 함께 지내면서 먼저 말도 걸어주시고 잘 대해주시며 한국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었다고 구술하였고, 연구참여자 5는 새아버지가 자기 자식처럼 생각해 주시고 교육시켜주시려고 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8 또한 처음에 새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놀랐지만 같이 살다보니 잘해주시고 먹을 것도 잘 사주셔서 좋은 기억을 많이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새아버지가 잘 못할 때도 교육시키고 자기 자식으로 생각해서 많이 고마웠어요.”(연구참여자 5).

④ 자율적인 노력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감

연구참여자들 가운데는 중도입국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스스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가고자 노력하였다. 발음 문제로 학교 다니면서 놀림을 받는 등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스스로 발음을 바꾸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연구참여자 5는 취직 후 대학 진학 준비도 모두 스스로 찾아보고 준비를 하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그때는 그냥 제가 좀 최대한 빨리 적응하고 제 발음의 문제를 좀 바꾸고 또 한국의 생활에 대해 익숙해지면 좀 해결이 될 것 같았어요.”(연구참여자 3).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며 견뎌

연구참여자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며 견디고자 노력하였다. 새아버지와 다시 이혼을 하시게 된 엄마를 바라보며 힘들었지만 주변에서 새아버지에게 맞았던 지인을 본 적이 있어서 맞지는 않았다는 점을 위로삼아 현

실을 받아들여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연구참여자 1), 어릴 때부터 할머니, 고모 등을 전전하며 살았던 연구참여자는 할머니는 너무 연로하시고 고모는 바쁘시다 보니 혼자 집안일을 많이 하였는데, 이로 인해 집안일을 잘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였다(연구참여자 3). 한편 연구참여자 7은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가 계신 한국으로 오게 되어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게 된 것은 아쉬웠지만 독립해서 지내면서 생활력이 강해진 면에서는 도움이 되었고 장점도 있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하였다.

⑤ 종교생활

종교에 의지함

연구참여자들은 친구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종교 생활을 하며 신에게 의지하며 버텨 내기도 하였다.

“저는 특히나 의지할 곳이 정말 없었거든요. 제 부모님들도 뭐가 별로 의지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친구들 또 이제 저를 안좋아하고 막 이랬었으니까 특히나 더 그렇게 완전 밑바닥으로 밑바닥에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저를 살렸던거죠.”(연구참여자 7).

종교 공동체의 지지

종교생활은 믿고 있는 신뿐 아니라 종교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며 힘을 얻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7은 교회 집사님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힘을 얻었다고 하기도 하였고 연구참여자 8은 교회에 다닐 마음은 없었으나 친구들의 권유로 나가보니 많은 분들이 챙겨주시고 힘든 학교 생활에 관심도 가져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고 구술하였다.

“되게 많은 분들이 챙겨주셨어요. 이제 <중략> 그때 이제 교회에서도 고등부 중등부 나누잖아요. 처음 갔을 때 고등부로 갔는데 그래 저희 일을 맡은 그 선생님이 그냥 제 일을 그냥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사주고.”(연구참여자 8).

2) 중도입국 청소년의 애착외상경험 일반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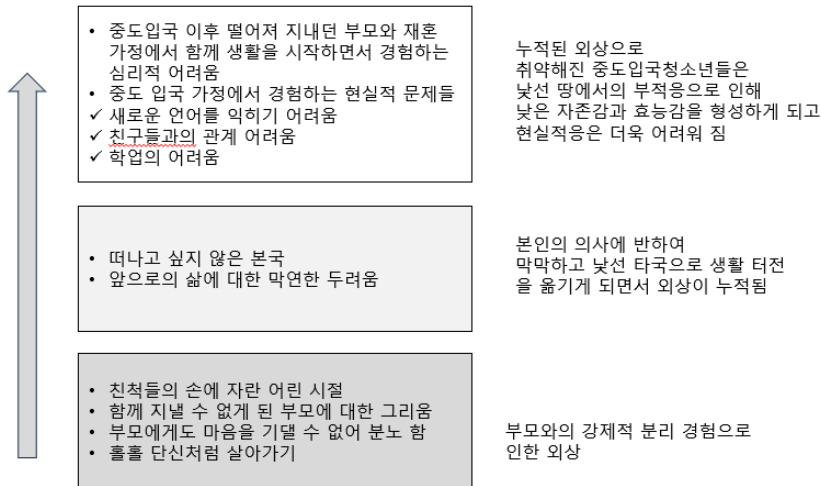
Giorgi(2002)의 현상학 연구방법에서 일반적 구조진술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의 구성 요소 간 관계를 의미한다(최영희 1993). 본 연구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애착외상 경험구조를 <그림 1>과 같은 도식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기술을 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애착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취약성 위에 외상이 반복되고 현실적응의 어려움이 더해져 갔다. 다시 말해,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강제적 분리라는 외상적 경험으로 심리적 취약성을 형성하였는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막막하고 낯선 타국으로 생활 터전을 옮기게 되면서 외상이 반복되는 상황에 노출되었다. 누적된 외상으로 취약해진 연구참여자들은 낯선 땅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과 낮은 자기효능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고, 현실적응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중도입국 이전 어린 시절 외상경험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한부모와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남은 한부모마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원가족으로부터 홀로 남겨져 친척집을 전전하며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함께 지낼 수 없는 부모가 그림고 친구들의 화목한 가정이 부럽고 부모가 그리우면서도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곳이 없었다. 자신을 잘 돌봐주지 않았던 부모에 대한 분노를 느꼈고, 용서하기 어려웠다.

연구참여자들은 본국에서 거주하다가 부모님 사정으로 중도입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본국에서 함께 생활하던 가족이나 친구들과 떨어져야 하는 슬픔을 경험하였다. 익숙했던 문화, 자신의 진로와 꿈을 꾸던 본국의 생활은 가족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접어야 할 수밖에 없었다. 여행이라고 생각했던 한국행이었는데 '앞으로는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강압적인 통보를 받아야 했던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중도입국 이후에도 익숙했던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기만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떨어져 지내던 부모와 재혼가정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해야 했다. 자신을 '버렸다' 생각했던, 부모와 다시 함께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새롭게 형성된 가정 안에서 계부, 이복 형제들

과 함께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는 더욱 외롭기도 하고 소외감이 몰려왔다. 언어도 익숙치 않다보니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기도 어려웠다. 부모의 생활습관이나 가치관이 부딪히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이 중도입국 이후 적응에 있어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한 것 가운데 하나는 언어문제였는데 이는 다양한 문제로 이어졌다. 가족 뿐 아니라 친구,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어려웠고 또래관계에서 왕따나 차별 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교에서는 새로운 언어로 공부하기 쉽지 않았고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한편, 중도입국 청소년이 중도입국 이후 적응에 도움이 되었던 점은 언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들이나 학교 선생님, 다문화센터 선생님, 종교 공동체 등이었는데 이들은 자신의 부족한 언어 실력과 낯선 문화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무능감, 위축되는 정서를 지지해주었고, 수용해 주었다. 가정 안에서는 오랜기간 떨어져 지내던 부모지만 한국에서 다시 살려주고 지원을 해주셔서 위안이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주요한 보호요인으로는 어려움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 애착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취약성 위에 외상이 반복되고 현실적응의 어려움이 더해 감

그림 1. 중도입국청소년 애착외상경험의 일반적 구조진술

자기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처지를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며 견디고자 노력하였다.

5. 논의

본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이 경험한 애착외상 경험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 탐색하기 위한 현상학 연구이다. 연구결과는 17개의 본질적 주제, 37개의 드러난 주제로 나타났는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의 애착외상과 상담의 함의점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중도입국 이전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떨어져 지내거나, 친척들의 손에 자라면서 부모님에게조차 마음을 기대지 못하고 홀홀단신처럼 살아가야 했다. 연구참여자들 가운데는 부모님 이혼 후 한 부모와 지내다가 함께 지내던 양육자의 재혼으로 다시 혼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은 부모로부터 다시 한번 ‘버림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더욱 큰 외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도입국청소년이 중도입국 과정에서 상당 기간 부모와 분리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친인척이나 조부모의 양육을 받거나, 심한 경우 빈집에 방치되는 상황을 겪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실태를 다룬 기존 연구들(류방란·오성배 2012; 석희정·하춘광 2015; 김진원 외 2017)과 유사한 맥락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이러한 심리적 상태가 잘 드러났다. 부모의 보살핌이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부모의 부재로 인해 분노, 그리움, 상실감 등 복합적인 감정을 겪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심리적 상처는 지금도 이들의 정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해당 시기를 ‘부모에게 버림받은 시기’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효정·조규필 2018). 하지만 본 연구에서 드러난 부분은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지내면서도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컸고, 친구들의 평범하고 화목한 일상이 부럽기만 한 마음이었다. 특히, 일부 참여자들은 외도로 인해 이혼한 부모를 만나기 위해 한국에 왔으나, 정작 부모

가 자신을 찾으러 오지 않거나, 본국에 있는 부모를 만나고 싶다는 요청에 대해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어머니를 접했을 때, 다시 한 번 심리적 붕괴를 경험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자녀 관계와 같이 관계 의존도가 높은 애착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와 방임을 모두 포괄하는 애착외상에 해당할 수 있는데 (Allen 2013) 이러한 애착 외상은 어린 시절 뿐 아니라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이해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방임은 양육자의 심리적 부재로 발생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신호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학대에 비해 쉽게 드러나지 않고, 다른 형태의 아동학대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진 주제이기에(이문희·이수림 2013), 중도입국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에서도 방임으로 인한 애착외상의 심리적 과장을 놓칠 우려가 존재한다. 애착외상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자녀의 애착관계 붕괴로 인해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능력 손상, 부정적 정서관리의 실패, 공격성 및 기억의 억압으로 인한 해리로 인해 자기 체계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Briere and Elliott 1994; Cook and Spinazzola 2005). 실제로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상당수는 이러한 해리경험을 일부 드러내기도 하였는데 부모와 헤어졌던 시간이나 부모에 대한 마음 등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보고가 많았고,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며 친인척 집을 전전해야 했다고 보고하면서도 ‘괜찮았다’고 구술하는 등 어린 시기에 감당하기에 쉽지 않았을 상황에 대해서 조차 단조롭고 무정동한 느낌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이러한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현실 접촉이 어렵고 자기체계 손상이 의심되는 부분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애착외상으로 인한 주요한 심리적 특성으로 상담 개입 과정에서 정서적 결핍이나 왜곡, 관계 회피 성향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등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중도입국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오랜 시간 함께했던 친구, 친척, 익숙한 환경과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어야 했다. 이처럼 원치 않는 이

별은 정서적 기반을 잃는 경험으로 작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특히, 부모의 부재 속에 조부모와 함께 성장했던 연구참여자들은 중도입국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강제적인 분리와 상실을 경험하게 된 것이며 이는 또 한번의 외상 경험일 수 있었다. 이는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외상의 경험이며, 안전의 잠재적 상실 사건이다. Juang 등(2018)도 이주로 인한 분리의 경험이 외상사건임을 주장하면서 ‘애착’의 원칙이 이주로 인한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이해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중도입국청소년에게 애착의 극복은 적응에 있어 중요한 핵심 요인일 수 있다.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심리 상담에서 이는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부모와 함께 자란 다문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는 달리 이주과정에서 부모 이외에도 다양한 애착대상, 언어, 환경 등과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분리되는 경험을 해야 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셋째,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 이주 전 출신국가의 학교, 인간관계, 놀이문화 등에 학습되었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이질감을 경험하고 다차원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석희정·하춘광 201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단순히 문화적 스트레스로 본다기보다 이민자들의 고통에 대해 외상의 개념적 틀 안에서 살펴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원치 않는 중도입국을 앞두고 본국에서 함께 했던 친구, 익숙한 공간, 익숙한 언어, 자신이 그려왔던 본국에서의 꿈과 진로 등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 및 요인들에서도 단절과 상실감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의 요청으로 잠시 한국에 방문하는 여행 정도로 알고 한국으로 입국하였기 때문에 갑자기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접한 경우도 있었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과 싸웠지만 결국 무기력하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털어놓기도 하였다. 인터뷰과정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자에게 익숙하고 그리운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상담자는 이들의 이주 문제를 단순히 문화 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간주하기보

다 이들의 '애착'문제에 중점을 두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상담초기에서 상담자와의 안정적인 라포형성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 상담자와의 애착 형성과정은 심리적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이를 감안하여 공감적이고 수용적인 개입을 해야 하고 1차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상담환경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중도입국 이후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오랫동안 만나고 싶었던 부모와의 재회는 기대와는 달리 서먹함과 거리감으로 이어졌으며, 부모의 재혼으로 형성된 새로운 가족 내에서는 정서적 소외와 외로움을 더욱 깊이 경험했다.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에게도 의지할 대상이 없었다고 구술하였다. 더구나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어도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적 욕구나 경제적 필요도 표현하기 어려워 했다. 한편,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님의 생계 문제로 또 다시 방임에 놓여질 수 밖에 없었고, 떨어져 지내던 부모와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가정을 떠나는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중도입국 이후 장기간 떨어져 지내던 친부모와의 관계 재설정 문제나 친부모가 재혼가정에서 계부모·이복 혹은 동복 형제자매 등과의 관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를 선행연구들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오경석 2010; 양계민·조혜영 2011).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친부모와 새로운 부모 사이에서의 갈등, 부모의 방임, 형제자매 간 차별을 경험하며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계민·조혜영 2011). 이들 가운데는 새로운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결국 자신의 출생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장명선·송연숙 2011; 여성가족위원회 2012). 이러한 경험은 중도입국 이후 장기간 떨어져 지냈던 친부모와의 관계 재정립, 그리고 재혼가정 내에서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정서적 부담이자 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중도입국청소년에게 '가정'은 낯선 문화 속에서 적응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이기 때문에(석희정·하춘광 2015), 중도입국청소년을 상담하는 데 있어 '가족 내 갈등'을 다루는 것은 현실적인 적응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일 수 있

다. 본 연구는 특히 이들이 중도입국 이전에 겪은 애착 손상과 분리, 그리고 이후의 가족 재구성과 적응이라는 중첩된 스트레스 경험을 포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중도입국 이전 경험 및 입국 과정에서 이들은 주요 양육대상과의 애착 외상을 경험하면서 취약한 심리적 기반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들이 단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안은 채 새로운 가족 내에서 정서적 자리를 다시 만들어가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상담에서는 외상문제와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부모에 대한 애착외상으로 인한 취약한 대인관계 형성 능력, 부정적 정서관리의 문제나 해리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통상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불안감, 낮은 자존감, 버려졌다는 느낌, 자기비하 등의 문제(Colomba et al. 1999), 그리고 재혼가정의 자녀들이 맞닥드려야 하는 내부적인 긴장, 분노, 갈등, 실망 등(Ganong and Coleman 1994)의 문제들이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중도입국청소년이 지닌 다층적인 정서적 고통과 환경적인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상담현장에서의 개입에 있어 적절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연구참여자들의 중도입국 이후 적응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도입국청소년의 위험요인은 새로운 언어, 친구 관계의 어려움, 인종차별 문제, 학업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문제는 또래 관계나 학업, 문화적응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중도입국 이후 생활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에 입학하면서 발음 문제로 친구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차별, 왕따 경험 및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을 뿐 아니라, 제 학년에 진화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언어문제로 인해 학습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교우관계에서 차별과 따돌림의 대상이 되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한다(류방란·오성배 2012). 그 결과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낮고 우울감과 소외감이 높으며(Yeh 2003), 학교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가지게 되거나,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Vega and Rumbaut 1991; Vega et al. 1987).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애착외상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신뢰형성과 자기 존중감에 미쳤던 부정적인 영향들이 상호작용하여 학교와 적응 전반에 심리적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었다. 이는 애착외상과 같은 심리적 취약성을 기반으로 한 어려움이 적응의 문제와 맞물려 보다 심층적인 상담적 개입이 요청됨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교육과정에서 이탈하거나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로 이어져 한국사회로의 통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의 보호요인은 친구들의 지지, 학교의 지원, 새로운 가족 안에서의 지지, 자율적인 노력, 종교생활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중도입국 이후 적응의 위협요인으로 언어문제가 언급되었는데, 이러한 언어문제에 도움을 주고 지지해주는 대상들은 주요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상당수 경험하는 가족 내 갈등을 겪을 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이성친구나 종교 공동체도 적응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고, 학교에서는 진로문제나 고민 등을 스스로 없이 나누어 주시는 선생님이나 다문화 학교, 한국어 센터 등에서도 한국사회 적응에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다문화 학교나 한국어 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입장이나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에 큰 힘이 되었다. 또한, 새롭고 낯선 가정 안에서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계부나 계모가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는 경우에는 적응에 도움이 되었고, 헤어졌던 부모와 다시 만나 서먹하면서도 식사 등 일상생활을 관리받고 돌봄 받았을 때 큰 힘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지지지원 확보를 강조한 선행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홍우정(2019)은 중도입국청소년에게 학교 밖 지지처나 멘토 자원 등의 사적지지 자원의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은 우리나라 이주 초기에 언어 미숙에 따른 가족이나 친구의 지지지원, 정보의 부재 등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 가이드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의 확충이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애착외상의 관점에서 이들을 위한 기관의 확충이나 제도적 지원 이외에도 부모교육 및 애착외상의 회복을 돕는 심리적 지원의 확보 또한 중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및 논의점을 바탕으로 중도입국청소년 상담의 개입의 함의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애착 외상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치료법이 연구되고 있는데, 이문희와 이수림(2013)은 애착외상 치료의 통합적 치료모형을 소개하면서 외상처리, 재건, 성장의 3단계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외상처리 단계에서는 앞서 논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심리적 안정을 확보한 가운데 외상사건을 재구성하고, 두 번째 재건단계에서는 외상으로 인해 손상된 영역을 재건하는 단계로 양육자에게는 아동 및 청소년과의 애착 향상을 위한 반응 및 기술을 지도하고, 안전과 위험 단서를 파악하여 정서표현 및 조절, 정신화 능력을 증대시키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성장 단계에서는 자신과 자신의 미래, 인생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자각을 확장하고 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애착외상의 통합적 모형에 근거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의 상담 시사점을 고려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 된 바와 같이 중도입국청소년은 어린 시절 애착외상 경험 이후 성격 형성 및 대인관계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들의 손상들이 동반되기 때문에(Allen 2013) 부정적 정서관리의 실패와 공격성, 해리로 인한 부적응적 행동, 자기 혐오 등의 문제들을 나타낼 수 있다(Briere and Zaidi 1989; Cook and Spinazzola 2005). 이러한 심리적 기제의 손상은 중도입국 청소년이 가족 갈등, 언어 미숙, 또래관계 갈등 등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서 2차적으로 우울, 비행, 자살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박재연 2014) 상담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즉, 1단계에서는 상담자는 주요 애착 대상이자 지지자원으로서 장기적인 상담을 계획할 필요가 있는데 상담 과정 안에서 상담자와 안전한 환경을 확보한 가운데 외상사건을 개입할 필요가 있다. 2단계에서는 상담 장면에서 양육자와의 상담도 동시에 진행하면서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이해를 축

구하고 애착증대를 위한 개입을 진행할 수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심리적 내성 능력을 기르면서 자신의 안전과 위협 단서를 파악하고 자신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증진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3단계에서는 자신이 중도입국청소년으로서 한국문화적응은 어렵지만, 자신이 타문화에서 습득한 언어나 문화를 강점으로 활용하고, 현재 자신의 내적 역량 및 대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과 학교 밖 지지자원 확보, 멘토 등과 같은 실질적 지지자원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 섭외에 어려움이 많아 출신국가가 중국과 베트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배경을 포함한 중도입국청소년을 인터뷰하지 못하여 국가적 배경에 따른 경험의 다양성을 포괄하기 어려웠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배경이나 국적의 중도입국청소년, 한국으로 귀화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등의 중도입국청소년의 배경을 구체화하여 애착과 관련된 경험을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함께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애착외상의 회복을 돕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후속 연구를 통하여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신: 전지열(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전공 조교수)(yeori102@kcgu.ac.kr)

Correspondence: Jiyeol Jeon(Associate Professor, Counseling Psychology,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yeori102@kcgu.ac.kr)

2025.04.16 접수, 2025.04.29 심사, 2025.08.11 게재확정

참고문헌

- 고은혜·배상률, 2017, 부모와의 별거경험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입국 후 가족환경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4), 211-232.
- 교육부, 2022,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
- 김민아 외, 2014, 서비스 제공자가 인식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 적응 어려움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1(9), 147-175.

- 김은경·김현주, 2017, 이주배경 청소년에 관한 질적 연구 동향: 국내 및 북미 학술지 게재 논문 분석(2003-2015), 상담학연구, 18(2), 245-270.
- 김재훈·김민선, 2021, 다문화 가정 자녀 관련 연구 동향과 향후 과제, 현대사회와 다문화, 11(1), 1-24.
- 김진원 외, 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직업훈련에 관한 참여 실행연구: 조선족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8(2), 63-99.
- 김현숙, 2021,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과 과제, 이민정책연구원.
- 김효정·조규필, 2018,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적응과정 연구, 다문화와 인간, 7(1), 59-103.
- 남부현·김경준, 2018, 중도입국청소년 초기 적응과정에 관한 조선족 부모의 경험과 인식, 한국청소년연구, 29(2), 5-34.
- 류방란 외, 2011, 외국출생 동반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류방란·오성배,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 기회와 적응 실태, 다문화교육연구, 5(1), 29-50.
- 박봉수 외, 2013, 중국계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부모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21(2), 331-355.
- 박재연, 2014,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2(1), 201-224.
- 배상률, 2016,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석희정·하춘광, 2015, 도입국청소년들의 가족생활적응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학교사회복지, 1-35.
- 신경림 외,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영권, 2016, 중도입국 학생의 학업능력 향상 방안 연구, 배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윤정, 2018,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 방안: 이주배경 아동의 발생 및 성장 환경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계민·조혜영, 2011,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엄명용, 2013,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영향요인, 한국가족복지, (42), 39-82.
- 여성가족부, 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위원회, 2012,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오경석, 2010, 입국초기 이주청소년의 경험과 다문화 사회 복지의 과제, 임상사회사업연구, 7(3), 33-54.
- 이문희·이수림, 2013, 애착외상의 이해와 치료적 함의, 청소년상담연구, 21(2), 413-448.
- 이수진·김현주, 2016,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족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3(5), 205-235.

- 이형하, 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분석: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5(12), 59-70.
- 장명선·송연숙, 2011, 서울시 이주배경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최영미·송영호, 2020,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족적응에 관한 연구-초국가적 가족관계 및 새로운 관계구성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2(4), 189-214.
- 최영희, 1993, *질적 간호연구*, 서울: 수문사.
- 홍우정, 2019,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진로 준비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Allen, J. G., 2005,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2nd ed.).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Allen, J. G., 2013, *Mentalizing in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attachment trauma*. London: Karnac Books Ltd.
- Bean, T. et al., 2007, Comparing psychological distress, traumatic stress reactions, and experiences of unaccompanied refugee minors with experiences of adolescents accompanied by parent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5(4), 288-297.
- Briere, J. and Zaidi, L. Y. 1989, Sexual abuse histories and sequelae in female psychiatric emergency room patient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6(12), 1602-1606.
- Briere, J. N. and D. M. Elliott, 1994, Immediate and long-term impacts of child sexual abuse. *The Future of Children*, 4(2), 54-69.
- Coleman, M. et al., 1994, The presentation of stepfamilies in marriage and family textbooks: A reexamination. *Family Relations*, 289-297.
- Colomba, M. V. et al., 1999, Coping strategies and depression in Puerto Rican adolescents: An exploratory study.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5(1), 65-75.
- Cook, A. et al., 2005, Complex trauma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sychiatric Annals*, 35(5), 390-398.
- Dukes, S. 1984,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in the human science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23(3), 197-203.
- Juang, L. P. et al., 2018, Using attachment and relational perspectives to understand adaptation and resilience among immigrant and refugee youth. *American Psychologist*, 73(6), 797-811.
- Lincoln, Y. S. and E. G.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Publications.
- Lyons-Ruth, K. et al., 2006, *From Infant Attachment Disorganization to Adult Dissocia-*

- tion: Relational Adaptations or Traumatic Experiences?.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9(1), 63-86.
- Oishi, N., 2012, The limits of immigration policies: The challenges of highly skilled migration in Japa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6(8), 1080-1100.
- Parreñas, R. S., 2005, Long distance intimacy: class, gender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between mothers and children in Filipino. *Transnational families Global networks*, 5(4), 317-336.
- Suárez-Orozco, C. et al., 2002, Making up for lost time: The experience of separation and reunification among immigrant families. *Family process*, 41(4), 625-643.
- Vega, W. A. et al., 1987, Migration and mental health, an empirical test of depression risk factors among Mexican American wome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512-530.
- Vega, W. A. and R. G. Rumbaut, 1991, Ethnic minorities and mental health. *Annual Review of Sociology*, 17, 351-383.
- Yeh, C. J., 2003, Age, acculturation, cultural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symptoms of Chinese, Korean, and Japanese immigrant youth.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9(1), 34-48.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on Immigrant Youth's Attachment Trauma

Hyojin Cho* · Jiyeol Jeon**

Abstract This research explores immigrant youth's emotional pain derived from being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9 adolescents aged 19 to 24. The contents of interviews were analyzed by Giorgi's method. Results showed 37 prominent topics, 17 essential themes, including "childhood raised by relatives," "longing for parents who can no longer be together," "inability to rely on parents," "living like an orphan," "a home country that I don't want to leave," "vague fear of the future," "psychological difficulties experienced when starting to live with remarried parents after being separated from them following immigration," "practical issues experienced in an immigrant family," "difficulty in learning a new language," "difficulties in relationships with friends," "issues of racial discrimination," "academic struggles," "support from friends," "support from school," "adapting within a new family," "self-directed efforts," and "religious life."

Keywords Immigrant Youth, Attachment Trauma, Giorgi Phenomenology, Qualitative Study

* First author, Sung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ssociate Professor, hyojin@sungshin.ac.kr

** Co-Author,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Counseling Psychology, Associate Professor, yeori102@kcgu.ac.kr